

수녀 악령부터 살인범까지...가을, 스릴러의 계절



SNS 스릴러 표방한 '서치' 개봉...한국계 美 배우들 주인공 '컨저링' 스피노프 '더 년' · 실화 범죄 스릴러 '암수살인' 등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스릴러 영화들이 찾아온다. 올 여름에는 복격자를 제외하면 대작들 경쟁으로 스릴러 영화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 관객들의 복마음을 해갈해 줄 국내외 스릴러 영화들이 개봉하는 것. 가장 먼저 관객들을 만나는 영화는 지난달 29일 개봉한 '서치'다. 실종된 딸을 찾는 아버지가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딸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들 그린다. SNS 스릴러를 표방하는 '서치'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컴퓨터와 그 안의 콘텐츠로 긴장감 넘치는 서스펜스를 선사한다. 컴퓨터 화면을 통해 펼쳐지는 배우들의 연기는 누구나 쥐는 일상을 연상시키며 현실감과 몰입감을 더한다. 구글에서 근무한 경력에 있는 아내의 차간티 감독은 "우리가 매

일 소통하고 사용하는 노트북, 휴대폰 등 기기들을 활용해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었다. 그럴 어떻게 사용하는지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친숙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이 같은 연출 기법의 이유를 밝혔다. '스타트렉' 시리즈로 국내에 두터운 팬층을 가진 존 조를 비롯해 한국계 배우들만 캐스팅이 이뤄진 것도 눈여겨 볼 점이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계 미국인 배우들로 가족 캐릭터들이 구성됐다. 이에 대해 존 조는 "한국계 미국인 배우가 이렇게 할리우드 영화에 캐스팅되기도 쉽지 않은데 가족 전체가 화목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보통 한국계 미국인 배우가 영화에 등장하면 가족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설정이 많다. 그런데 이번 영화에는 가족으로서 그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담은 게 자랑스러웠고 몽클했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19일에 개봉하는 '더 년'은 할리우드 공포 스릴러 영화의 역사를 다시 쓴 '컨저링' 시리즈의 스피노프 영화다. 일명 '컨저링 유니버스'라 칭해지는 세계관 속에서 이번에는 컨저링 2에 등장한 수녀 악령 발락의 귀환을 다뤘다. 아이린 수녀와 버크 신부는 젊은 수녀가 자살한 사건을 의뢰받아 루마니아의 한 수녀원으로 향하고 그곳을 조사하면서 충격적인 악령의 실체와 마주하게 된다. 기괴하고 음산한 미스터리를 극대화시킨 '컨저링' 시리즈의 분위

기를 어떻게 이어갈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컨저링' 시리즈로 잘 알려진 제임스 완 감독이 제작에 참여했고, '컨저링'의 주역 베라 파미가의 동생인 타이사 파미가가 아이린 신부 역을 맡아 영화를 이끌어 나간다. 10월에는 김윤석과 주지훈의 영화 '암수살인'이 개봉한다. '암수살인'은 2010년 부산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하며 추가적인 살인사건을 자백하는 살인범 태오(주지훈 분)와 그의 자백을 믿고 끝까지 피해자를 찾아 나서는 형사 형민(김윤석 분)의 이야기를 담았다. 관객포인트는 무엇보다 김윤석과 주지훈의 밀도 높은 심리전이다. 전혀 다른 지점에서 서 있는 두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해 나갈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범인을 조짐에 맞춘 그간의 범죄 스릴러물 영화들과 달리 피해자와 사건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가 전개된다. 김윤석은 "범죄자가 아닌 피해

자를 초점에 둔 사건의 접근 방식이 좋았다. 범인을 체포했다고 영화가 끝난 게 아니라 피해자를 다 밝혀내야 온전히 끝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영화의 차별점을 밝혔다. 사발까지 하며 캐릭터에 몰입한 주지훈 역시 실제로 부산 토박이 버금가는 사투리를 구사하면서 살인범 태오의 미스터리한 심리를 연거푸했다는 후문이다. 한 배급사 관계자는 "보통 여름이 스릴러물에 어울리는 계절이지만 이번 여름에 유독 대작 경쟁이 심해, 여름 끝물과 추석 성수기 사이 다양한 장르 영화들이 개봉하고 있는 추세"라며 "마니아들이 기다려 온 '컨저링' 스피노프 영화 '더 년'이나 새로운 스릴러를 시도한 '서치' 등 특색 있는 공포 스릴러 영화들이 눈에 띈다"고 스릴러 영화들의 가을 개봉 이유를 설명했다. 스릴러에 어울리는 여름은 이미 지났지만 이들 영화들이 탄탄한 만듦새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아는형님' 신정환 출연→보이콧, 득보다 실 많은 무리수



더불어 팬들의 추어를 소환했다. 여기까지는 훈훈한 그림이 있었다. 하지만 신정환이 합류하며 분위기는 급격하게 다운됐다. 그도 그럴 것이 신정환은 아직 대중의 용서를 받지 못한 '문제적 남자'다. 신정환은 2005년 불법 도박 혐의로 구속 및 약식기소되어 출연 중이었던 주요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하지만 워낙 이미지가 좋았던 탓에 3개월 만에 '초고속 복귀'에 성공한다. 그러나 2010년 9월 그는 방송 스케줄까지 무단으로 핑크를 내고 해외 원정도박에 나서 또 한번 실망을 안겼다. 당시 신정환 측은 핑기열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며 조작된 사진을 공개하는 등 행방에 나섰는데, 이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

나 명품 패딩으로 온몸을 휘감고 카메라 앞에 섰던 그의 사과는 진정성 논란을 불러왔을 뿐 대중에게 외닿지 않았다. 경찰 집중조사 끝에 신정환은 2011년 5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6월 2심에서 다시 상태가 안 좋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로 감형받았다. 그러나 신정환은 영구 장애가 올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수감 생활 도중 사인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신정환은 2011년 12월 23일 모범수로 선진재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

됐다. 이후 사기 혐의에 피소되기도 했지만,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신정환은 2014년 결혼에 골인, 싱가포르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등 사실상 연예계를 떠난 듯한 행보를 보였다. 본인도 인터뷰를 통해 "늘어갈 생각이 없다", "조용히 살려고 하는데 찾아오는 게 싫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정환은 지난해 코엔스타즈와 계약을 맺고 방송 복귀를 선언했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던 그가, 연예계 복귀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던 그가 또 한번 대중을 기만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어쨌

든 신정환은 '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다'며 Mnet '프로젝트 S:악마의 재능 기부'로 공식 복귀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은 '신정환 복귀'라는 화제성만 남겼을 뿐 시청률 면에서 참패했고, 신정환을 섭외했던 '악마의 재능' 또한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아는형님'에서 신정환이 모습을 비추며 순식간에 대중의 분노는 재점화됐다. 이와 함께 과거 '아는형님' 멤버들의 범죄 이력도 재조명됐다. 이상민 이수근 등도 도박 관련 혐의를 받았던 바 있다는 것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신정환의 출연으로 어두운 과거

를 털고 새로운 길을 걷던 멤버들까지도 다시금 이미지 손상을 입을 셈이다. 이제 대중은 신정환에 대한 분노를 '아는형님'으로 옮기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도 제대로 반성조차 하지 못한 신정환을 섭외할 정도의 마인드라면, 차라리 도영목까지 섭외해 범죄자 재활 프로젝트를 만들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더이상 '아는 형님'을 보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득보다 실이 많았던 신정환 섭외의 무리수다. '아는형님'이 잘못된 선택을 뒀고 다시 시청자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JTBC '아는형님'이 신정환 출연으로 구설에 올랐다. 결국 신정환은 네달 도박 생활 끝에 2011년 1월 19일 귀국, 체포됐다.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변명과 함께 말이다. 그

나 공분을 샀다. 결국 신정환은 네달 도박 생활 끝에 2011년 1월 19일 귀국, 체포됐다.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변명과 함께 말이다. 그

'나인룸' 김희선 김영광 김해숙 티저 공개, 카리스마 폭발



tvN 새 주말드라마 '나인룸'의 캐릭터 티저 3종 영상이 동시 공개돼 화제를 모은다. 김희선 김영광 김해숙의 강렬한 비주얼이 폭풍전

이의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미스터 션샤인'의 후속으로 오는 9월 첫 방송 예정인 '나인룸'은 희대의 악녀 사형수 '징화사'(김해

숙 분)와 운명이 바뀐 변호사 을지혜이(김희선 분), 그리고 운명의 열쇠를 쥔 남자 '기유진'(김영광 분)의 인생리셋 복수극. 공개된 캐릭터 티저 3종 영상에서 각각 김희선(을지혜이 역), 김영광(기유진 역), 김해숙(징화사 역)의 내레이션이 순식간에 집중하게 만든다. 먼저 김희선은 차갑고 나직한 목소리로 "높은 수입일, 출세한 변호사, 성공한 법조인, 승소율 100%"의 내레이션으로 몰입도를 높인다. 이어 "그런 변호사가 나야라는 자신감과 함께 백전백승 변호사 을지혜이의 여유민만한 모습이 카리스마를 폭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하면, 김희선의 연인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스와한 매력 을 내뿜는 김영광은 "이무것도 모르는 척, 관심 없는 척, 좋은 척"이라며 밝은 미소 뒤 숨겨진 이면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더욱이 "그때 야만 진실에 다가갈 수 있으니까"라는 의미심장한 멘트가 이어져 그가 다가가고 싶은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마지막으로 김해숙은 "사형수에 게 매일 헤가 뜨는 아침은 죽을임니다"라고 나직하게 읊조려 극강의 몰입감을 선사하고 있다. 시청자 집현이 33년째 미뤄져 삶을 포기한 사형수의 면모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 마침내 굳게 닫힌 입이 열리며 "그냥 죽이세요"라는 짧고 강렬한 김해숙의 연기가 절로 소름을 유발한다.

오늘의 운세 2018년 9월 3일 월요일 (음력 7월 24일)

<p>▶ 쥐 길로만 강해 보일 뿐 정과 의리에 약해 인정에 끌리는 것이 약점이다. 4, 5, 7월생 상대방 마음을 깊이 안다고 해도 중요한 시점에서 배려만 하다가 후회의 날을 보낼 수 있다. 소, 토끼, 닭 등과의 의논하여 길을 모색하라. 분홍색이 길하다.</p>	<p>▶ 돼지 나를 밖으로 나타내 좀 더 활기찬 생활을 하라. 7, 9, 10월생은 꿈이나 낭만 같은 것을 인생에 받아들여 하지 않는 것도 좋으나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 쥐, 토끼, 말미의 도움을 받으라.</p>	<p>▶ 원숭이 될 수 있는 한 남과 충돌하지 말라. 1, 3, 12월생은 철없이 본심을 드러내 보이다 손해를 본다. 사, 오, 툄 성씨는 함부로 저신하면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내기 힘들다. 4, 5, 6월생은 빨간색으로 나를 나타내고 도전하라.</p>
<p>▶ 새끼 자존심이 강한 것도 좋으나 상대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좋겠다. 7, 9, 11월생은 과거는 그만 잊어라. 그러나 앞날을 위해 돌아보는 두드려 보고 건너라. 기, 오, 툄 성씨는 '설마?' 하다 기회를 놓친다. 동, 남쪽이 길하다.</p>	<p>▶ 돼지 상대의 말을 흘려넘기지 말라.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밀고 나가려는 것은 좋으나 지나치면 못사람의 비난을 받는다. 1, 2, 5, 7월생은 자신감만 품고 뛰어들면 생각지 못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라.</p>	<p>▶ 닭 2, 7, 11월생은 절제하지 않다가 빗더미에 올라서니 주의하라. 재산 증식에 신경 써야 한다. 기, 비, 오 성씨는 무리하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욕심을 내지 말고 많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p>
<p>▶ 호랑이 강한 성격 탓에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종종 있으니 주의하라. 배우자를 편하게 해주라고 큰 소리치나 오히려 신경 질환으로 고민하게 만든다. 2, 4, 5월생은 검은색을 피하라.</p>	<p>▶ 양 지금은 큰일에 신경 쓸 때다. 힘들고 목말라도 내 호소를 들어주는 이 없는 상황이다. 5, 11, 12월생은 좌절하지 말라. 지난 일은 잊어버려라. 마음을 비우고 새롭게 도전해야 성공할 수 있다. 강함을 드러낼 때 막힌 일도 풀린다.</p>	<p>▶ 개 독선적인 생각이나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이지 말라. 4, 8, 12월생은 내 생각이 모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것만 찾으려고 눈 돌리지 말라. 5, 7, 10월생은 주식 등 투기에 손대면 실패한다. 일확천금을 꿈꾸지 말고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라. 빨간색을 삼가라.</p>
<p>▶ 토끼 상대를 대할 때 진심을 보라. 금전이 인생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금전으로 모든 것 다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알아. 진심을 보는 눈을 가지라.</p>	<p>▶ 돼지 감정을 억제하고 조용함 속에서 실수를 찾을 때 내 앞길에 광명이 비친다. 4, 5, 7월생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결단을 내리라. 그런 다음 마음의 안정을 찾으라.</p>	<p>▶ 돼지 비 온 뒤 땅이 단단해지듯 어려운 고통은 사라지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온다. 1, 4, 12월생은 상대에게 먼저 진심과 자신감을 보여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상대를 제압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라. 북쪽이 길하다.</p>